



ela

02 FEB

environment &
landscape architecture

환경과 조경

SPECIAL

4 people Discussion on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and Construction

DESIGN WORKS

Suwon PARK City
Colleg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07712274266331

ISSN 1227-2663

해일에 대비한 갯벌 및 해안 생태 공원 Salt Marsh Design

수잔 반 아타

Susan Van Atta

캘리포니아 샌타바버라 Van Atta Associates Inc. 소장



Susan Van Atta

I believe it is time for us to think and talk about the environmental issues of today in the context of solutions.

- Susan Van Atta

우리는 이제 환경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더 이상 현실적인 해결방안과 분리될 수 없는 시대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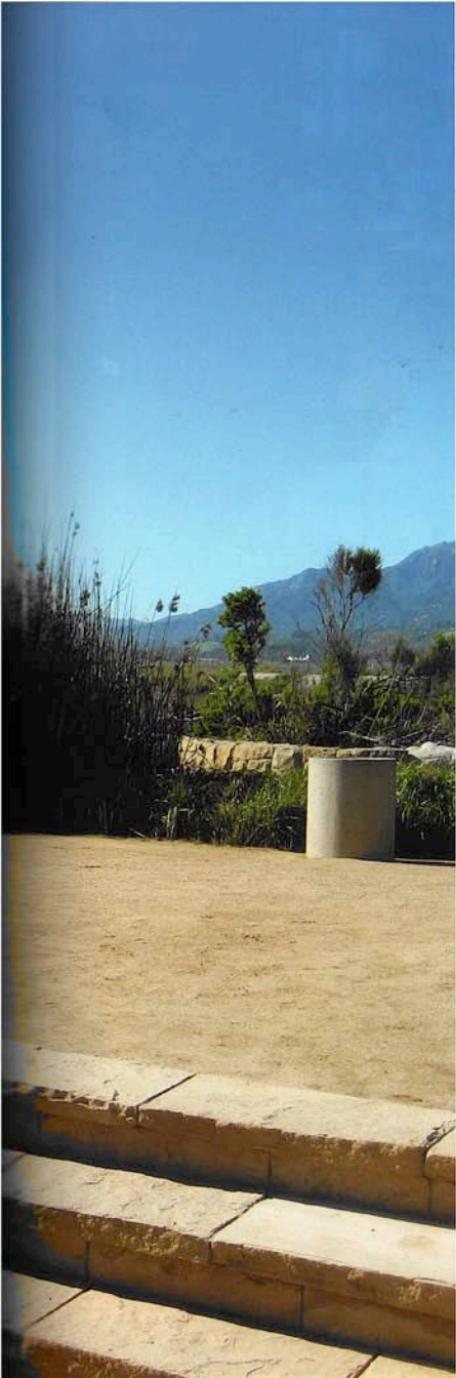
- 수잔 반 아타



Carpinteria Salt Marsh

카린테리아 엘솔지공원

©Van Alstyne Associates



과학적 아름다움의 창출에 선 조경가

레이철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지적된 생물종의 폴락과 인공위성 님버스Nimbus가 포착한 선명한 남극의 오존구멍, 녹아서 표류하는 얼음에 길은 북극곰은 지난 반세기동안 격려히 높아진 자연환경 보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설명해주는 단서들이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이제 환경에 대한 복원과 보호는 어떠한 개발의 압력조차도 무력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대중적 공감대와 정책적 지지를 받고 있다. 「생태」가 디자인과 도시의 화두가 된 시대에, 일어버린 경관을 위한 투자 또한 유망한 시장으로 성장해나갈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조경가의 작업이란 환경의 보전과 삶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이다. 모두가 환경을 이야기하는 시대에 보전과 복원을 힘주어 주장하는 것은 어렵지 않고, 오히려 일자원화하고 극단적인 생태주의는 더 큰 환경적 편익을 가져오는 균형있고 이성적인 국토정책에 제동을 걸기도 한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책은 빛발치는 대중의 요구와 제한된 예산의 기로에 선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대다수의 경우 「생식적인 수준」의 적극한 녹색 무늬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하라는 난감한 과제를 조경가에게 부여하기 십상이다. 이것이 수잔 반 아타가 말하는 복원 사업의 현실이다.

복원 사업은 대개 생태학이나 수문학이 주가 되는 기술적 과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기에 조경가는 끊임없이 발주처와 대중을 설득하고 교육해야 한다. 미적, 사회적 가치가 달성되지 못한 복원 사업은 완성되는 순간 이미 후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자연환경의 질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경찰관의 감시나 과학적 모니터링이 아닌 대중의 눈과 활발한 사회적 이용이기 때문이다. 시민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공간이란 머지않아 위법과 방치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을 우리는 경험으로 배워왔다.

수잔 반 아타는 디자이너가 된 환경학 전공자이다. 그녀는 학창시절 클리포너니아의 해변과 섬들을 여행하며 희귀한 자생식물과 독특한 생태적 환경 연구에 매료된 적이 있다고 술회한다. 이런 관심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 *The Southern California Native Flower Garden*이라는 저서로 완성되었다. 환경학과 환경학자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자생식물에 대한 열정을 가장 묵묵히 전시하게 전파하고 있는 조경가이기에 과학자들과의 학제적 협업이 매우 중요한 복원 프로젝트에서 꼴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당연히 보인다. 그녀의 디자인은 한쪽으로 물린 사람들의 시야와 360도로 물어주는 과정이다. 자연환경 또한 결국 광범한 사회적 맥락에 포함된다. 사실, 그녀가 천재로 있는 쉬운 길을 가지 않고 굳이 힘들고도 일을 알 수 없는 길을 택하는 이유는 이 양면성을 정확히 이해하는 사람들이 드물기 때문이다. 생태복원 프로젝트에서는, 단순히 서식처 조성 이상으로 사람들이 자연의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과학자와 발주처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반대로 예산과 개인적 취향이 주가 되는 주택 프로젝트에서는 자생식물을 식재와 풍토조경에 어긋나지 않는 디자인이 결과적으로 활번 효과적으로 만족스런 미학적 수준을 달성할 수 있음을 고객에게 확신시켜야 한다. 실현상태는 디테일에 대한 세심한 손길과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거쳐야 비로소 현실화된다. 고속도로변의 열악한 대지를 택해 회사의 부지로 조성하여, 창의적인 디자인 솔루션으로 주어진 단점을 정점으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공원조성 시에도 흙담, 폐자재 등 관례를 벗어나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시공에 있어 몇 배 많은 시행착오와 고생을 감수했지만 독특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생태와 인간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생식물을 적절히 배치해 보기에 아름답고, 효과적으로 이용자와 행тер를 제어하여, 생태적 프로세스 또한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디자인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복원 프로젝트에서 생태적 매트릭스와 별개로 가설적 제시된 관령동상을 지우 보게 된다. 식재 따로, 동산 따로, 공간 따로인 프로젝트도 흔하다. 쓰나미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으로 해안경관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요구되는 이 때, 라군 파크와 카핀테리아 염습지공원에 세심하게 계획된 수잔 반 아타의 아름답고 인간친화적인 생태학은 단연 둘보인다.



라군 파크Lagoon Park와 카핀테리아 염습지 복원Carpinteria Salt Marsh

택지와 도로 개발로 인해 캘리포니아 해변 지역에 존재하던 염습지의 75%, 임시불못(vernal pool)의 90%가 파괴되거나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잔 반 아타는 대표적인 두 프로젝트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복원이 아닌, 진정성 있고 높은 생태적 성과를 증명하는 복원 사업이기에 조경 디자이나와 과학자 모두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복원사업이 완료된 지 3년 만에 700여 종이 넘는 새로운 조류가 관찰되고 있으며, 체류성 어종이나 이동성 어종 모두 주변의 염습지보다 더 풍부한 종과 양을 보여준다. 식물학자들도 원래의 복원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희귀식물 보전과 재생산 성과에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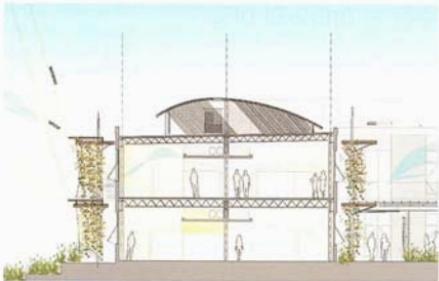
해변 경관 복원의 경우 생태적 프로세스가 주가 되는 습지영역(wetland)과 조경이 중심이 되는 건생초지(upland meadow)의 균형있는 배분이 중요하다. 물 속에서 번식하고, 일정식물로부터 먹이를 얻는 곤충과 미소생물은 생태계의 회복(resilience)에 중추적 역할을 한다. 수잔 반 아타 프로젝트의 성공 이유는 일생동안 다양한 서식처에 의존하게 되는 습지생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부지 내에서 하나의 완전한 라이프사이클이 완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광범위한 캘리포니아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풍부하고도 아름다운 꽃의 들판을 조성하는 한편, 시각적인 차원에 그치지 않고 희귀종의 보호와 학문적 연구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여 단순한 서식처 복원이나 법규의 만족 수준을 넘어서 성과를 보여준다. 또한 인류학적인 조사도 병행하여 이 지역의 쯔마시(chumash) 원주민들이 전통적으로 이용하던 식물들 또한 복원, 주변에 거주하는 앤디언의 후손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문화적 교육기회를 만들었다.

생태적 복원은 서식처의 조성 및 보호와 함께 접근통성을 확보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다. 생태학자들은 대개 보호에 치중한 나머지 물리적 객리는 단순한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수잔 반 아타는 라군 파크의 경우에서, 깊이비교고 이질적인 구조물이나 지형의 변형 없이 캘리포니아 자생의 해안 세이지 관목을 이용함으로써 이용객의 접근을 통제하면서도 부지의 생태성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건물 지붕에서 쟁여 내려오는 갈매기 배설물인 구이노(guano)를 정화하고 식물을 위한 영양요소로 사용하기 위해 4000미터에 이르는 바이오스웨일(bio-swale)을 연결하고, 어메니티를 한곳에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방문자가 감상하는 경관과 생태적 프로세스가 매끄럽게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Casa Nueva

까사 누에바 대기환경형 건물

©Van Atta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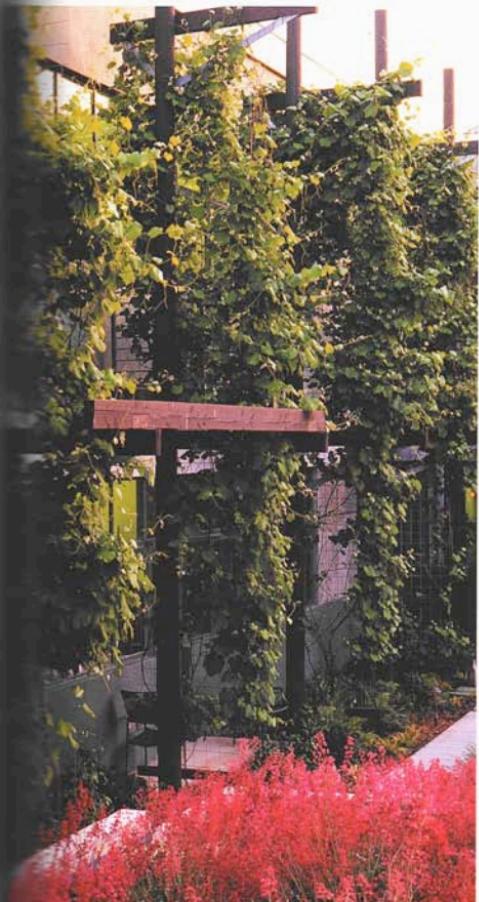


까사 누에바 Casa Nueva 대기환경형 건물

2011년 미국조경기협회상을 수상한 이 작품은 친환경 건물의 설계에서 조경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아실히 보여주는 프로젝트다. 단지 LEED 포인트를 획득하기 위한 한 부분으로서의 조경이 아니라, 에너지 절약, 간접조명, 실내환경 개선, 그리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등 그린빌딩의 핵심적 부문에 조경이 위치한다는 사실을 증명해내었다.

까사 누에바의 디자인은 '대기환경형의 브랜드 가치와 환경 메시지 전달'이라는 상징적 가치 외에도, 실제적으로 별도의 상당한 공사비 증액 없이도 평균 50% 정도로 에너지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경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한으로 절제된 건물을 입면 디자인으로부터 얻어진 소량의 예산으로 덩굴과 재생플라스틱 페브릭을 활용한 트렐리스(trellis)를 도입함으로써, 식물의 풍부한 느낌 자체가 건물의 얼굴이 되도록 유도하였다. 자못 전통적인 조경의 기법이라 할 수 있는 트렐리스를 매우 정밀한 주광분석(day-lighting studies)에 의거해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실내 사무공간에 고급 간접광을 제공하고 냉방비용을 줄인 점은 결코 홀만하다. 또한 관급 토목공사에서 폐기된 목재 전신주를 재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트렐리스를 제작하였고, 대지계획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인 건물과 외부공간이 만나는 접점에 길이감을 주고, 경계부를 최대한으로 활용했다는 점은 매우 혁신적이다.

이러한 성공적 프로젝트는 계획 초기부터 건축가와 조경기의 긴밀한 협의와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담당 건축기자와 배우자인 켄 라트키(Ken Ratke)의 조경 공간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우선순위 설정이 초기의 대지계획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즉, 까사 누에바는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기든 공간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남서쪽에 배치하는 한편, 건물을 'ㄱ'자 모양으로 대지 경계선에 맞닿아 북동쪽에 배치하여, 건물 자체가 인접 도로로부터의 소음을 한 단계 누그러뜨리도록 설계하였다. 부지의 단점으로부터 건축물을 이용해 완화시키고, 역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으로 수용한 대표적 사례다.



Grape trellises provide shade in spring and summer, color during the fall, and in winter allows more daylight into the building

또 트렐리스는 봄과 여름에는 그늘, 가을에는 화려한 색상을,
겨울에는 밀집에 더 많은 빛빛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Van Atta Associates

수잔 반 아타와의 대담

진행_ 최이금 - 그룹한 뉴욕 지소장

수잔 반 아타는 일리노이주에서 태어나, 금격히 도시화되던 남부 캘리포니아의 오렌지카운티에서 자랐다. 현재는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해안도시인 샌타바버리에 거주하고 있다. 블랙베리 건축사무소의 소장인 켄 라트키와 사내에서 혼자녀를 두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사람답게 평소에 하이킹과 전자기, 요가를 즐긴다고 한다. 미국 문화재단원의 이사장, 샌타바버리대학의 건축 및 디자인 협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라군 파크와 까사 누에바로 각각 2008년과 2011년 ASLA상을 수상했으며, 캘리포니아대학과 로스앤젤레스 수목원, 캘리포니아 역사학회, 뉴어버니즘 대표자회의, 샌타바버리 시물원 등에서 강연해 왔다.

Q. 캘리포니아대학교 샌타바버리캠퍼스에서 환경학을 전공하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실무를 하신 후 다시 San Luis Obispo에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에서 조경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이런 학문적 배경이 과학자들과 협력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었습니까?

A. 대학에서 환경학을 전공하면서, 샌타바버리 카운티의 해안선 토지이용계획과 새로운 정책방향을 작성하는데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직접 새로운 경관을 창조함으로써 환경에 일조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더군요. 환경학이라는 것은 일단 제너럴리스트generalist로서의 교육인데, 실용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익혀야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 조경학과에 다시 입학했습니다.

실은 환경학과 재학시절에도 이로보다는 주로 환경문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해법을 배우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광범위한 생태학, 동물학, 식물학, 그리고 환경정책과 환경법,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쌓음으로써 각종 과학적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고 봅니다. 또 환경의 역사나 환경예술도 빠놓을 수 없지요.

Q. 최근 저서 「남부 캘리포니아의 자생식물은 정원」을 제게 읽었습니다. 책의 구성방식이 매우 독특했고, 토착식물에 대한 열정이 가득 느껴졌습니다. 현재 당신의 관심점이 어떤 계기로 만들어졌다고 보십니까? 또 캘리포니아의 자생식물들이 가진 고유한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A. 무엇보다 자생식물에 대한 예정은 제가 갖고 있는 지식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관심을 기울여 보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생식물의 아름다움에 대해 자신 있게 주장장을 펼칠 수 있는 근거에는, 단지 학제적이고 추상적인 지식으로서 아니라, 수십 년간 몸으로 체득하고 주의 깊게 관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느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경험이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실상 1800년대 이후로 캘리포니아를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예술가와 작가들, 그리고 식물수집가들이 독특한 캘리포니아 식물의 매력을 흥벽 빼지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자생식물은 유래가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미묘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간략히 정의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러한 식물들을 해안사구나 습지, 초지, 해안관목림, 관목수풀지(chaparral), 각종 숲과 사막, 개울과 하천들과 같은 주변 환경과 항상 연관되어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대개 주변에 어떤 식물들이 함께 자라는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식물은 그 자체로서 뿐 아니라 캘리포니아 본연의 경관과 함께 있기 때문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Q. 해수면 상승과 쓰나미 등으로 해안 영습토[※]경관 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라군 파크와 카민테리아 습지공원, 샌디랜드 가든의 경험을 통해 해안경관 복원에서 경작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아직까지도 지구 온난화가 개별 지역들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빙글 말쓸에 주신 프로젝트들이 해일을 대비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카민테리아의 염습지의 경우, 지난 수년간 흥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많이 변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위치한 카민테리아 습지공원이 본래의 모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염습지가 본래의 생태적 다양성을 되찾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라군 파크의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절벽 위에 위치합니다만, 개발지역으로부터 밀려온 흥수류에 대한 저류나 토양침투 기관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샌디랜드 가든의 대상지는, 범규로 의해 건축물이 대지로부터 2.5미터 높게 지어져 있고 반대쪽 해안가에는 석조 방파제가 있어 그 사이 조성된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서식조건에서 아름다운 식물을 키우고 공간을 유지하는 작업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는 모래 침식과 염수의 범람에 견딜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생식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변성할 수 있는 적합한 종을 선택해 전략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중요한 프로젝트였습니다.

Q. 생태복원이나 보전계획에서 조경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신이 생태학자나 과학자들과 협업하는 비결은 무엇인가요?

A. 조경가는 생태환경 이전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사람들은 알아 쉬면서, 환경을 조망하게 하고, 흥미롭고 멋진 곳을 만들 수 있죠. 「아름다움」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수입니다. 대다수의 경우,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서식처가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밀도가 높은 도시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죠.

생태학자들은 서식처에 대한 설명 포장을 세우는 것을 즐깁니다. 소위 「자연 속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현직적인 방법보다는 긴장 눈에 띠진 않지만, 성세하면서도 초기성을 불려일으키며 사람들의 선인관을 바꾸는 요소를 심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들과 자주 협업을 합니다.

저는 생태학자나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어떤 희귀한 식물을 찾아낸다거나 서식처를 알아맞히면 대개 깜짝 놀라죠. 제가 주로 노력하는 부분은 과학자들이 아름다움과 방파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면 과학자들은 서식처의 중요성에 대해 발주처나 주민들에게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조경가들은 또한 그래픽이라는 무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쉽게 이해시키는 중요한 제주가 있으지요.

Q. 아생 식물이나 동물뿐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좋고 소중한 환경을 만드는 길은 무엇입니까?

A. 진정으로 동식물들에게 좋은 환경이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순서는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깨끗한 공기와 물은 기본이고, 균형을 갖춘 생태적 체계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즐거워 할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 스스로 여기는 걸어도 되는 쪽, 저기는 보호해야 하는 쪽이라는 구분과 인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존중감인데,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인생이 가치 있다고 느끼는 행복한 순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Q. 현재의 복원 관행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점은 어떤 것인지요?

A. 불행하게도, 복원 사업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어야 하는 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 사식처의 아름다움이나 사람들의 경험에 대한 배려는 동반되기 힘들죠. 모든 성공적인 복원 사업에는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고 그 장소를 사랑하는 사람들, 즉 지지자들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Q. 성공적인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조건으로 출중한 클라이언트를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이상적인 클라이언트는 어떤 사람입니까?

A. 간단히 말해,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Q. ‘파이프가 아닌 플랜트Plants, not pipes’ 개념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A. 빗물의 처리 방식에 관한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빗물을 최대한 빨리 파이프를 통해서 처리할까?’ 하는 것이 그간의 고민이었습니다. 마치 빗물은 보기 싫은 미운 것인 양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빗물이 많은 생물들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바이오스웨일이나 레인가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표면에 머물도록 촉진하여 식물이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하자는 구호입니다.



Q. 많은 조경가들이 자생식물을 설계에 반영하기를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구하기가 힘들고, 계다가 구한다 해도 대개 가격이 비싸기 일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신이 클라이언트를 설득하고, 원하는 자생식물을 확보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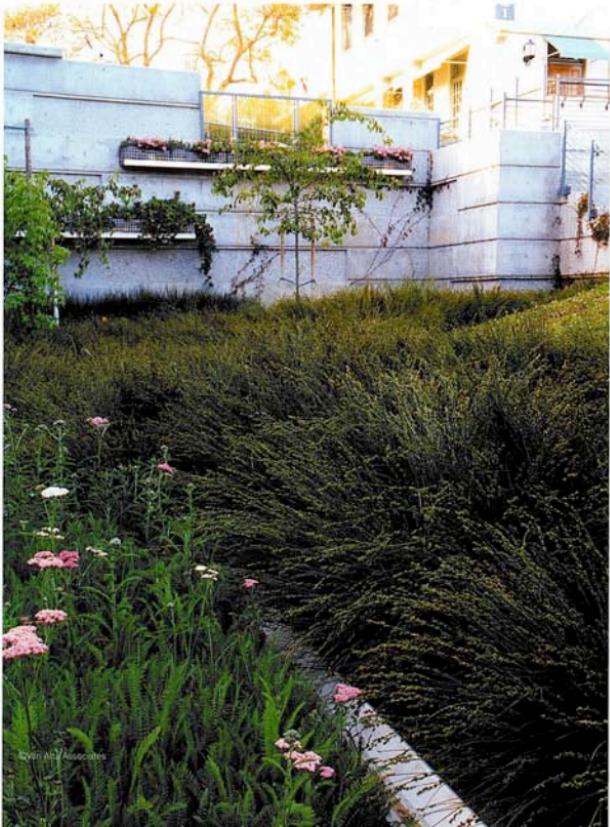
A. 고객이 자생식물을 원치 않는 이상 저는 굳이 강요하지 않고, 우선 기능과 감각에 적합한 식재계획을 선보입니다. 그러므로 그 식물이 토착식물이거나 아니나 하는 문제는 그 하위의 중요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토착식물이 매우 인기를 끌고 있으므로, 점점 많은 공급업체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토착식물을 설계에 반영할 때는 아직도 제가 직접 그 식물을 구할 수 있는지, 사용할 수 있는지 증명해내야 합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대상으로 계획해서 키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샌타바버리의 쉘필드공원을 조성할 때의 일입니다. 35,000주의 식물을 인근의 팔마공원에서 키웠습니다. 나중에 팔마공원이 산불로 소실되었을 때, 역으로 쉘필드공원이 새로운 서식처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Q. 당신에게 좋은 디자인이라는 무엇입니까?

A. 저에게 좋은 디자인은, 그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자연적이고 문화적인 유산을 잘 이해하는 토대 위에서 아름다움으로 감동을 주고, 공동의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독특한 해법을 일컫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usan Van Atta, FASLA

Van Atta Associates, Inc., Santa Barbara, California

Q. You studied environmental science at UC Santa Barbara and then began a landscape career. How did that transition happen? Do you think your environment background helped to collaborate with science experts?

A. While still a student at UCSB, I had the opportunity to help prepare new policies and land use plans for the Santa Barbara County coastline. This experience resulted in the desire to help the environment by guiding the creation of landscapes, rather than by creating policy. Since I'd gained a generalist's background at UCSB, I was interested in the very practical skills and knowledge offered at the California Polytechnic University in San Luis Obispo, so I completed their program in Landscape Architecture.

At UCSB, I was able to design my studies around my interest in learning about solutions to environmental problems. I gained an understanding of many scientific disciplines, including ecology, zoology and botany, as well as policy oriented professions through coursework in Environmental Law, Land Use Planning, and Land Use Planning. I also took classes in environmental history and art.

Q. I enjoyed reading your book, "The Southern California Native Flower Garden" and learned much about the way it is organized and also your passion for native planting. What influences have shaped your present thinking? What is unique and beautiful about California's native plants?

A. At its heart, I suppose my love of our native flora reflects my knowledge of it. [The more you know the more you see.] I feel confident in expressing the beauty of the native landscape because I have observed it so carefully over so many years. I am not alone in this process. Since the time artists, writers, plant hunters came to California in the 1800's, getting to know the native flora often results in a love affair with it.

California's native flora is uniquely diverse, so it is difficult to briefly express its beauty. I think of plants in associations- dunes, wetlands, grassland, coastal sage, chaparral, woodlands, forests, deserts, creeks and streams and more- and plan landscapes around plants that are found together in nature.

Q. With the growing concern about sea level rise and storm surge, salt marsh restoration and coastal landscape planning are becoming more important worldwide. According to your experience from Carpinteria Salt Marsh, Lagoon Park and even the Sandyland Garden, what are the critical elem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coastal landscape restoration?

A. That is a good question! I do not think we can anticipate the effect of global warming on a site-specific basis just yet, but the projects you mention do anticipate storm surge.

The Carpinteria Salt Marsh itself, which sits beside the park we designed, has been altered over many years to damper the affect of flood flows in the region. Our park helped to return biological diversity to these alterations. Lagoon Park sits high on a bluff, yet initiates stormwater detention and infiltration at the source [near roofs and paving], and throughout the park. The home associated with the Sandyland Garden sits 8 feet above existing grade, and portions of the garden sit between this and a large rock seawall placed many years ago to protect homes from storms. It was a challenge to create a beautiful garden in this space. One of several techniques we used included planting plants adapted to shifting sand and temporary inundation.



Lagoon Park, View into the vernal pool from the central observation platform on a foggy day

라군 파크, 안개낀 날에 중앙의 관람대에서 바라본 임시풀못

©Van Atta Associates

Q. What would be the critical role of landscape architects in the projects of ecological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lanning? How do you work with ecologists and scientists?

A. Landscape Architects provide for people too. We can create wonderful places for people to sit and overlook sensitive environments, and interesting trails that let visitors know where they are welcome.

Beauty is important to us, and in many cases it serves the habitat well to be visually appealing. This results in more human sympathy for these areas, especially at the urban interface.

Many ecologists like to include interpretive signage to describe the habitat. [AKA "books in the landscape"] I prefer to engage visitors with subtle, mysterious and perception-changing features, and sometimes collaborate with artists to achieve this.

I like to collaborate with ecologists and scientists, and they are generally surprised that I understand the habitats and know the plants found there.

We help them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beauty and accommodating visitors, while they help us to communicate the value of the habitat to others. Our firm's ability to communicate graphically helps them to quickly understand our unique role.

Q. What are the essential elements in an environment that is as good for people as it is for plants and animals?

A. If it is good for plants and animals, it will be good for people- perhaps not so much the other way around. Essential elements include clean air and water; ecological relationships that are in balance, and clues guiding people in safe and appropriate behavior such as where to walk and what should not be disturbed.

Most importantly, the environment should inspire the life-enhancing emotions of awe and respect. *

Q. What's your pet peeve about restoration and conservation projects?

A. Often restoration projects are undertaken as an obligation with no regard for the importance of beauty upon human experience, or the ability to achieve a special result. Successful projects have a 'constituency' or people who love and care for a site over time.

Q. You hav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good client for a successful project. Who is your ideal client?

A. Our ideal client is one with whom we share values.

Q. Could you explain the 'plants not pipes' solution?

A. "Plants, not pipes" refers to a way of treating stormwater runoff. Instead of getting rid of stormwater (meaning: rainfall) as quickly as possible through pipes as though it were a nuisance, this water is celebrated for its ability to support life, and allowed to run along the surface in bio-swales and rainwater gardens, nourishing plants, while allowing these plants to remove pollutants before they re-enter the larger environment.

Q. Most landscape designers wish to use native plants in their designs; however they are not always readily available from local nurseries and can be somewhat expensive. How did you persuade clients to invest in native landscapes and how do you procure the plants you want?

A. Unless a client asks for native plants, I present planting ideas in terms of function and appeal to the senses. The idea that they are native can easily be secondary to this.

California native plants are becoming very popular, and more nurseries are specializing in growing them. I still often have to 'prove' a plant is available by finding it myself for the contractor.

For very large projects, we have the plants contract grown. For Sheffield Park in the City of Santa Barbara, we had 35,000 plants grown from seeds and cuttings from nearby Parma Park. Several years later Parma Park burned entirely during a wildfire, so we can suppose the new park served as new habitat for displaced species.

Q. What is good design?

A. Good design is different for everyone.

For me, good design responds to an understanding of the natural and cultural influences upon a region, while seeking unique solutions that bring awareness to the beauty and importance of our environment.



Lagoon Park

라군 파크

©Van Atta Associates



Lagoon Park

라군 파크

©Van Atta Associates